

[성탄전도집회 - 간증]
지존파에게 생명 전한 전도 특공대

이재명 집사/ 2000 / 페이지수: 4

“가정의 애뜻한 사랑과
이웃의 정에 굶주려 사탄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 이들이
차츰 차츰 마음문을 열었습니다.
이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진짜 지존파’로 거듭났습니다“

저는 과거에 ‘삼만이’였습니다. 삼만이는 돈을 잘 벌던 사람입니다. 이 멋진 별명은 친구들이 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한 것을 빗대어 삼만이라 지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철옹성처럼 교만하던 제가 생명을 살리는 어부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1985년부터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훈련, 사역훈련, 선교사 훈련, 전도폭발 훈련을 받으면서 예수님처럼 제자 세우는 삶을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유교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6살때 이미 천자문을 마친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책상 앞에는 ‘세계평화대통령 이재명 각하 탄생’이라는 글을 붙여 놓고 10대 후반에 고등고시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문중소송사건에 10년 가까이 말려들어 아까운 젊음을 소진하고 말았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부산에서 밀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섬유도시 대구에서는 원단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1차 오일쇼크가 몰려왔던 74년에 서울로 왔습니다. 이때 이종형과 서서먹는 음식점을 개업했습니다. 돈을 갈퀴로 긁어모으듯이 벌어들였습니다.

이때 돈을 많이 벌면서 저는 삼만이가 되었습니다. 끝없는 소유욕으로 세계화 기치를 내걸고 동남아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에서 큰 손해를 보소 말았습니다.

사업이 망하자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고 먹을 양식마저 바닥났습니다. 유명한 사장, 모든 사람으로부터 추앙받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고 나니 아내의 눈빛까지 달라졌습니다. 존경받던 아빠가 하루아침에 무능력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화병이 들어 1년동안 서울대병원에서 집중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제게는 사형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아내는 합의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굴속에서 만난 주님

산에 들어가 토굴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 보라’며 하나님을 향해 고래 고래 고향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부터 살갓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왔습니다.

그러나 눈물로 회개하던 중, 12월 28일 자정이 넘은 시간에 몸이 뜨거워지면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기적처럼 병이 말끔이 나았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저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착한 아내의 마음을 강박하게 만드는 ‘쇼크 요법’을 쓰신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사람만 상대하던 제가 고통받고 소외된 사람을 돌보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초대교회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복음 현장에서 소경이 눈을 뜨고 앓은병이가 일어났습니다. 왕무당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에게서 귀신이 떠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아내와 가족을 학대하던 서울대학 공과대학교수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백혈병에 걸려 사형선고를 받은 43살 여인이 일주일 후 정상이 되어 퇴원했습니다. 복음은 생명이고 빛이고 능력입니다.

세상을 경악케 한 지존파 사건

1994년 9월21일 저녁에 뉴스를 시청하던 국민들은 분노와 좌절과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잔인하고 엽기적인 방법으로 5명을 살인하고 인육을 먹은 것을 자랑하고 영원한 악마로 기록되기를 원했던 지존파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인간임을 포기했다’며 발악했습니다.

저는 TV를 보며 이들에게 욕설을 마구 퍼부었습니다. 나라가 온통 지존파 얘기로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새벽기도를 하고 오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지존파사건이 일어나기 26년전 제가 출세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이 현직검사를 매수, 사건을 조작해 저를 기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겨울, 봄, 여름 세 계절동안 감옥속에서 고통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14차 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가장 고귀한 황금의 시간을 그렇게 유린당했기 때문에 망각의 세계로 다 쓸어넣고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6년 전의 그 사건이 또렷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당시 부인을 죽인 이유로 수감된 사형수 감방장을 전도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영접의 댓가로 감방장의 직분을 제게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방장을 맡게 됐습니다. 감방에서 매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팔자에도 없는 총감방장이 되어 매일 아침 10개 감방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1백 20명의 사람들이 아침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에는 영화 '벤허'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는 장면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운명하시기 직전에 한편 강도를 구원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순간 하나님께서 '지존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26년 전에 죄도 없이 감옥살이를 해야 했는지 그 수수께끼가 풀리고 과거가 해석이 되었습니다. 전도자 모임에 나가서 지존파를 전도하자고 했더니 '국민정서와 감정이 어떤데 그런 소리 하느냐'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기에 평신도 8명을 포섭해서 한국최초의 전도특공대를 만들었습니다. 지존파는 7명이기에 강력한 펀치히터가 필요할 것 같아 여장부 권사님 한 분을 더 세운 것입니다. 기도특공대를 조직하기 위해 65명의 부교역자들 한 분 한 분을 섭외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한 지혜와 명철 전략을 주시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5가지 전략을 주셨습니다. 관계 개선위해 영치금 넣기, 편지동한 영적전투, 범죄의 성장배경과 실제파악하기, 복음전도 그리고 아이들이 전도자가 되도록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구치소에 찾아갔습니다. 관계를 이웃이라 쓰고 영치금을 넣어주었습니다.

가짜 지존파, 진짜 지존파

이 아이들은 대대로 못사는 영광군 불감면 금계리 척박한 땅에서 태어났고 모두 결손가정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가정의 애뜻한 사랑을 받지 못했고 이웃의 정을 느끼지 못했던 사랑과 정에 굶주린 사탄의 꼭두각시 노릇을 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2가지 죄명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이웃이라는 이름으로 영치금을 넣어준 것에 대해 이 아이들을 충격받았습니다. 서서히 마음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영치금을 네 번 넣는데 지존파두목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제목은 '천하에 둘도없는 악마가 드립니다'였습니다. '일가친척 어느 누구도 찾아주지 않는데 얼굴도 모르는 분으로부터 영치금을 받고 보니 마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선생님도 대체 누구입니까? 지존파는 철면피라고 매일 공격을 퍼붓는데 저는 선생님에게서 따뜻한 인간애를 느낍니다. 얼마남지 않은 하루를 10년같이 살겠습니다. 지옥에서라도 이재명 선생의 안녕을 빌겠습니다. 악마의 대리인 김기환'이런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바울서신의 형식을 따라 저도 답장을 썼습니다. 기도하며 펜으로 두 달동안 치열한 영적전투를 했습니다. 편지로 전도하기로 마음먹고 7천자의 복음서신을 써서 보냈습니다.

편지를 통해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 교회를 세우신 목적, 성경을 주신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감방에 있는 모든 사람을 섬기고 전도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이 진짜 지존파가 될 수 있으며 진짜 지존파는 전도를 해야함을 얘기하며 양육했습니다.

마침내 그 아이들이 큐티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여섯은 모두 사형이 확정되고 여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11월2일 사형됐습니다.

저는 사형 전날밤을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아침8시에 지존파두목 김기환이 대국민사과를 하고 ‘하늘가는 밝은길이’ 찬송가를 부르고 ‘할렐루야’를 외치며 사형을 당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도 모두 할렐루야를 외치며 떠났습니다. 지존파중에 가장 어리고 어눌했던 한 청년은 성령이 충만하여 구치소 안에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소장님, 검사님, 의사선생님들께도 10분동안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한 후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 아이들은 43개의 교도소와 12개의 소년원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낙엽이 지는 계절에 그렇게 갔습니다. 그 아이들의 마지막은 지나온 삶과는 달리 영원을 소유한 행복한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영생은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영생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속에서 기독교 중심되는 부분을 몇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은혜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두번째, 천국에 들어가는 대상은 인간인데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죄입니다.

셋째,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내시는 분은 우주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넷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의 죄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영생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천국문을 여는 열쇠는 믿음의 열쇠입니다. 갓난 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에는 가짜믿음과 진짜믿음이 있습니다. 가짜는 지식적이고 현세적이고 일시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습니까?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행복해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으려면 그분을 믿고 그 말씀에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 출처 : 온 누 리 신 문